

## “올 추석엔 온라인 성묘” 광주·전남 추모시설 방문자제 호소

많은 인파 동시에 몰릴 경우 코로나19 급속도로 확산 우려  
매점·제례실 등 휴게시설 폐쇄...음식섭취 금지·마스크 착용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주요 추모시설이 '별초와 성묘 자제'를 호소했다.

17일 망월묘지공원(광주시립묘지)·영랑공원·국립5·18민주묘지·담양천주교공원묘원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추석연휴 동안 추모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방문 자제와 온라인 성묘를 권장하는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24~27일 설 연휴기간 40만명이 성묘를 위해 시립묘지와 영랑공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묘지와 천주교묘원도 1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설처럼 이번 추석에 많은 인파가 동시에 몰릴 경우 코로나19는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전국으로 퍼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추모시설은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하루 3차례 이상 소독작업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성묘 자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온라인 성묘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매점·제례실 등 휴게시설은 운영을 하지 않고 실내 추모관은 사전 예약제 방식 또는 휴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추모객은 성묘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방침이다.

성묘 뒤 음식 섭취는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있어 전면 금지하고 미리 준비한 음식은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망월묘지공원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 인파가 몰리면 방문자 명부 작성과 발열 확인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감염을 막기 위해 이번 추석은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망월묘지공원묘역(광주시립묘지)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성묘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온라인 성묘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고 방문자제를 호소했다.

이어 "추석 연휴까지 10여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평일을 이용해 미리 성묘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김미희 기자

## ‘진도 애플망고·해남 바나나’ 전남 아열대작목 확대

전남농기원 2023년까지 사업비 80억원 투입 4대 권역별 육성



전남농업기술원은 남도의 따뜻한 기후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전남에 적합한 아열대작목을 선정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해 백향과(순천·화순), 애플망고(고흥·진도), 레드향(함평) 단지 3

ha를 조성했다. 올해는 주요 열대과일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나나를 신규 작목으로 도입해 총 9개 시·군에서 4과종 6ha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4대 권역별로 집중 육성한다.

최근 소득 증가와 세계화,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아열대작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또 아열대작물이 새로운 고소득·기능성 작목으로 인식되면서 시·군의 특성화 사업

도 다양해지고, 6차 산업을 연계한 소득원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2080년까지 한반도 경지면적의 62.3%가 아열대 기후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아열대자원의 소득작목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장성군이 지난 6월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전남지역 아열대작목 육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2021년 신규사업 선정 공모를 진행 중이다.

전남농업기술원 김남균 기술보급과장은 “전남지역의 따뜻한 기후조건과 체계적인 기술지원으로 전남의 아열대작목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 고흥천 인근 주택·상가 상습침수 걱정 끝

고흥군, 고흥읍 ‘홍수해 생활권정비’ 공모 선정...460억 확보

고흥군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에 상습침수 구역인 고흥읍 지구가 최종 선정돼 사업비 460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읍 시가지지를 관통해 흐르는 고흥천이 폭이 좁은 데다 고흥시장 주변 저지대의 물 빠짐이 좋지 못해 2007년 태풍 ‘나리’를 전후로 침수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고흥읍 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상가와 주택의 상습 침수 걱정이 없도록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46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2021년부터 4년간 사업비를 투입해 고흥천 호안정비 5.4km와 노후교량 재가설 9개소, 봉황산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집중호우 시 침

수위험에 노출된 고흥읍을 안전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고흥읍 침수 예방 사업’을 계획했다.

고흥읍 침수사태 조사와 봉황산 주변 급경사지 개선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평가위원들을 설득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

저지대 물빠짐 좋지 못해 침수피해 계속  
2021년부터 4년간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송귀근 군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고흥천 주변 826명의 인명보호와 413가구 주택, 상가를 상습침수로부터 항구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